

마태오 복음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루카 3,23-38)

1.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 1) 마태오는 첫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한다.¹⁾
- 2)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약속된 자라는 뜻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²⁾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견고케 되리라 약속하셨다.³⁾

2.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⁴⁾

3.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⁵⁾

유다의 며느리인 타마르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것은 악하고도 부끄러운 실수였다.⁶⁾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타마르의 악행과 유다의 부끄러운 일까지도 당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선하게 사용하셨다.

4.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⁷⁾ 오벧은 이

-
- 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이하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9쪽, 각주 2.
 - 2) 창세 22,18 : 내가 너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 3) 1역대 17,11 :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네 아들들 가운데에서 네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 4) 창세 21,3 :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다.
창세 25,26 :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예사우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사악의 나이는 예순 살이었다.
 - 5) 창세 38,29-30 : 그러나 그 아기가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의 동기가 나오니, 산파는 “아니, 네가 틈을 비집고 나오다니!”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레츠라 하였다. 그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매단 아기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 6) 창세 38,1-26 참조.
 - 7) 1역대 2,10-12 :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들의 수장 나흐손을 낳았다. 나흐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았다. 보아즈는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사이를 낳았다.
룻 4,13,17 :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이다.

사이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롯은 젊어서 혼자가 된 불행한 여인이었다. 공통점은 둘 다 이방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살던 여인들이었다.

6.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⁸⁾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1)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짓는다.⁹⁾ 다윗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었다. 하느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어 첫아들은 죽는다.¹⁰⁾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고, 그 뒤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경외하며 산 위대한 왕이다.
- 2)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느님 뜻에 반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러할 때 다윗처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개해야 한다.

7.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¹¹⁾

8. 아삽은 여호사팻을 낳고 여호사팻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9.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10.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낳고 므나쎄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11.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 1)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하느님 뜻에 반하여 죄를 많이 지었다. 솔로몬은 하느님에게서 지혜를 받았으나,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다.¹²⁾ 르하브암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고,¹³⁾ 아삽은 병들었을 때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다.¹⁴⁾ 여호사팻은 경건하기는 했지만 악한 아하즈야와의 동맹관계 때문에 하느님께서 노하셨다.¹⁵⁾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취함으로써 이

8) 1역대 2,13-15 : 이사이는 만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탄엘, 다섯째 라따이, 여섯째 오렘,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9) 2사무 11,1-27 참조.

10) 2사무 12,15-19 참조.

11) 구약성경(1열왕 15,9; 1역대 3,10)에서는 아삽이 아니라 아사로 되어 있다. 유다 임금들의 족보가 구약성경과 독립되어 내려오다가, 중간에 잘못해서 아사가 시편 50편과 73-83편의 머릿글에 나오는 아삽으로 바뀐 것인데, 마태오는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여겨진다(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9쪽, 각주 5).

12) 1열왕 11,1-13 참조

13) 2역대 12,1-16 참조.

14) 16,11-14 참조.

15) 20,31-37 참조.

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고,¹⁶⁾ 말년에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우찌야는 교만함에 빠져 나병으로 여생을 마쳤다.¹⁷⁾ 므나쎄는 우상숭배에 빠져 악한 짓을 저지른다.¹⁸⁾

- 2)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이어졌다. 인간의 부족함과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12.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
13.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קים 낳았으며 엘야קים은 아조르를 낳았다.
14.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קים 낳았으며 아קים은 엘리웃을 낳았다.
15.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17.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¹⁹⁾

- 1) 마태복음의 족보는 루카 복음(3,23-38)과는 조금 다르다.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법적 부친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른다.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음은 같다.
- 2) 마태오는 인위적으로 세대 수를 14대씩 나눈다. 이 인위적인 “14x3”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지만, 아직도 정설은 없는 형편이다. 확실한 것은 마태오 복음서 저자가 이러한 도식으로, 선택된 민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점에 다다른다는 사실과, 하느님께서 그 역사를 당신께서 의도하신 목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다.²⁰⁾

16) 21,6 참조.

17) 26,16-23 참조.

18) 33,1-9 참조.

19) 우리나라 족보에 대하여 : 성씨를 기반으로 한 가문의 혈통을 본관이나 파에 따라 기록한 책. 족보 제도의 확립은 조선시대 유교통치이념의 정립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성은 부계의 혈통을 표시하는 것인데 같은 성이 모두 같은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을 정하게 되었다. 동성동본의 씨족들은 각기 파를 갖게 된다. 족보의 종류는 본관 소속의 동족 전부를 망라한 종보와 자기의 파만을 위주로 기재한 것을 파보, 자기의 직계만을 적은 가첩이 있다. 족보의 제작은 문중에서 관리하며 대개 30년 주기로 작성된다(다음 백과).

20)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0쪽, 각주 7.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루카 2,1-7)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²¹⁾

- 1) ‘탄생’은 위의 족보에서 밝힌 법적인 탄생을 이야기한다. 곧 동정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²²⁾
- 2)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이미 두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포함한 혼인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다만 약혼녀는 일 년 동안 친정에 머무른 다음에야, 남편과 혼인하고 부부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간통을 저지르는 죄가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독자들을 위한 것으로,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였는지 아직 모른다.²³⁾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 1) 성경의 의로움 또는 정의는 근본적으로 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충실함을 뜻한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일차적으로 마리아와의 인간관계에 충실함으로써, 마리아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의 의로움은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인 하느님과의 관계에 충실함, 곧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가리킨다.²⁴⁾
- 2) “세상에 드러낸다(폭로한다)”는 것은 결국 마리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²⁵⁾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²⁶⁾

21) 루카 1, 27 :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0쪽, 각주 8.

23) 각주 9.

24) 각주 11.

25) 각주 12.

26) 루카 1,35 :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 1) "주님의 천사"가 나타남은 구약성경에서처럼(창세 16,7.13 ; 탈출 3,2) 하느님의 개입을 뜻한다.
- 2) 꿈을 꾸다는 것은 인간이 의지대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 3)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혼인의 마지막 단계로써, 약혼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옴을 뜻한다.²⁷⁾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²⁸⁾

- 1) 예수는 본디 '주님(=야훼)은 도움/구원, 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²⁹⁾
- 2) 천사는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그리고 요셉이 아기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준다.³⁰⁾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³¹⁾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오는 이사 7,14를 인용하였다.³²⁾

27)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0쪽, 각주 14.

28) 루카 1,31 :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시편 130,8 :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집회 46,1 :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었다.

사도 4,12 :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29)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1쪽, 각주 15.

30) 각주 16.

31) 각주 17 참조.

32) 이사 7,14 :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8,8.10 : 그리하여 강물은 유다로 밀려들어 와 목까지 차게 되리라.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너의 땅을 온통 뒤덮으리라, 아, 임마누엘! 계획을 의논해 보아라. 그러나 깨져 버리리라. 결의를 말해 보아라. 그러나 성사되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 1) '잠에서 깨어남'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의로운 요셉이 꿈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며 바르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함을 뜻한다.
- 2) 마태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가 동정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예수님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다.